



Contents

● 동해·묵호항 주요 이슈

- ▶ 남북경협 활성화와 동해·묵호항이 나아갈 길
- ▶ 2018년 제2회 동해·묵호항 포트세일 개최

● 항만·물류 통계동향

- ▶ 전국 항만별 화물수송실적 통계
- ▶ 동해·묵호항 품목별 화물처리실적 통계

● 항만·물류 정책 동향

- ▶ 동해·묵호항 인센티브 제도 개선
- ▶ 강원도 해운물류 정책 추진 사항

● 주변국 국제 동향

- ▶ 러시아 동향
- ▶ 일본 동향

● 강원권 산업동향

- ▶ 쌍용양회(주)
- ▶ (주)DB메탈

● 센터 및 항만·물류 관련 주요 행사

● 동해·묵호항 주요 이슈

남북경협 활성화와 동해·묵호항이 나아갈 길

■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최근 남북간 한반도 평화모드로 인해 북방경제와 더불어 환동해권 경제권역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 또한 전 세계 경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 간의 교역증대와 경제 성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남북경협과 항만의 역할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서는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에서는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재개되면 먼저 개발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은 항만시설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¹⁾

이처럼 남북경협이 활성화된다면 도로 및 철도 등의 북한의 기반산업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항만 연계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만을 가지고 있는 인천이나 부산은 항만공사가, 동해와 울산은 지자체가 나서 유관기관들과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남북경협에 대비하고 있다.

강원도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남북경협사업과 강원도 항만물류의 연계 및 물동량 유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강원도 수출입화물유치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물류분과와 화주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류분과는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도내 무역항 인프라 준비사항 및 추진방법, 선사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화주분과는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유치대상 북한화물 파악 및 선결사항, 도내 기업 참여방안 등 물동량 유치를 중심으로 논의한다.²⁾

■ 동해·묵호항이 나아갈 길

동해·묵호항은 환동해권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해 있는 강원지역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써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이점을 가지고 있다.

동해·묵호항은 개항초기부터 남북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1984년부터 2002년까지 크고 작은 북한과의 교류를 수행해왔다.

과거 동해·묵호항에서는 북한 수산물과 수해 복구 지원 물자를 운송하였고, 금강산관광을 위한 금강호와 봉래호가 출항했던 곳이기도 하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동해·묵호항과 북한 나진항의 직항로 개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참여 등으로 중국 동북3성과 도내에서 생산된 각종 자원 및 공산품이 동해·묵호항과 북한 나진항 간 직항로를 통해 교역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³⁾

또한 북한의 자원 및 장비, 소비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 항만으로써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http://news1.kr/articles/?3433439>

2) <http://www.fnnews.com/news/201807011338050145>

3)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8042600044>



만경봉호와 동해·묵호항 동해지구 전경

2018년 제2회 동해·묵호항 포트세일 개최

■ 제2회 동해·묵호항 포트세일 개최

지난 10월 1일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에서 강원도와 동해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공동주최하고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지난 2017년 12월에 이은 두 번째 동해·묵호항 포트세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트세일에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달원 교수가 ‘신북방 경제 및 남북경협 시대와 동해·묵호항의 역할’에 대해서 기조발표를 하였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김재영 과장은 ‘동해·묵호항 현황 및 3단계 개발 공사’, 강원도의 홍종민 박사가 ‘강원도 해운물류정책’ 마지막으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정동훈 박사가 ‘동해·묵호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 동해·묵호항 발전 방안 모색 계기

최근 동해·묵호항은 신북방 정책 및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 속 북방 물류의 중심 항만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해·묵호항과 북한과의 교류는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약 3만 5,000톤의 북한 시멘트가 반입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북한 수해 지원, 1998년 금강호 출항, 2002년 경수로 사업 대북교역, 2018년 만경봉호 등의 북한과 교류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동해·묵호항의 역할과 지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남북해운합의서 남측 항만에는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동해·묵호항 포트세일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동해·묵호항이 발전하는데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제2회 동해·묵호항 포트세일

● 항만·물류 통계

전국 항만별 화물수송실적

■ '18년 1~9월 항만별 화물수송실적은 총 약 1,203백만 톤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부산항이 약 28.3%로 가장 많은 물동량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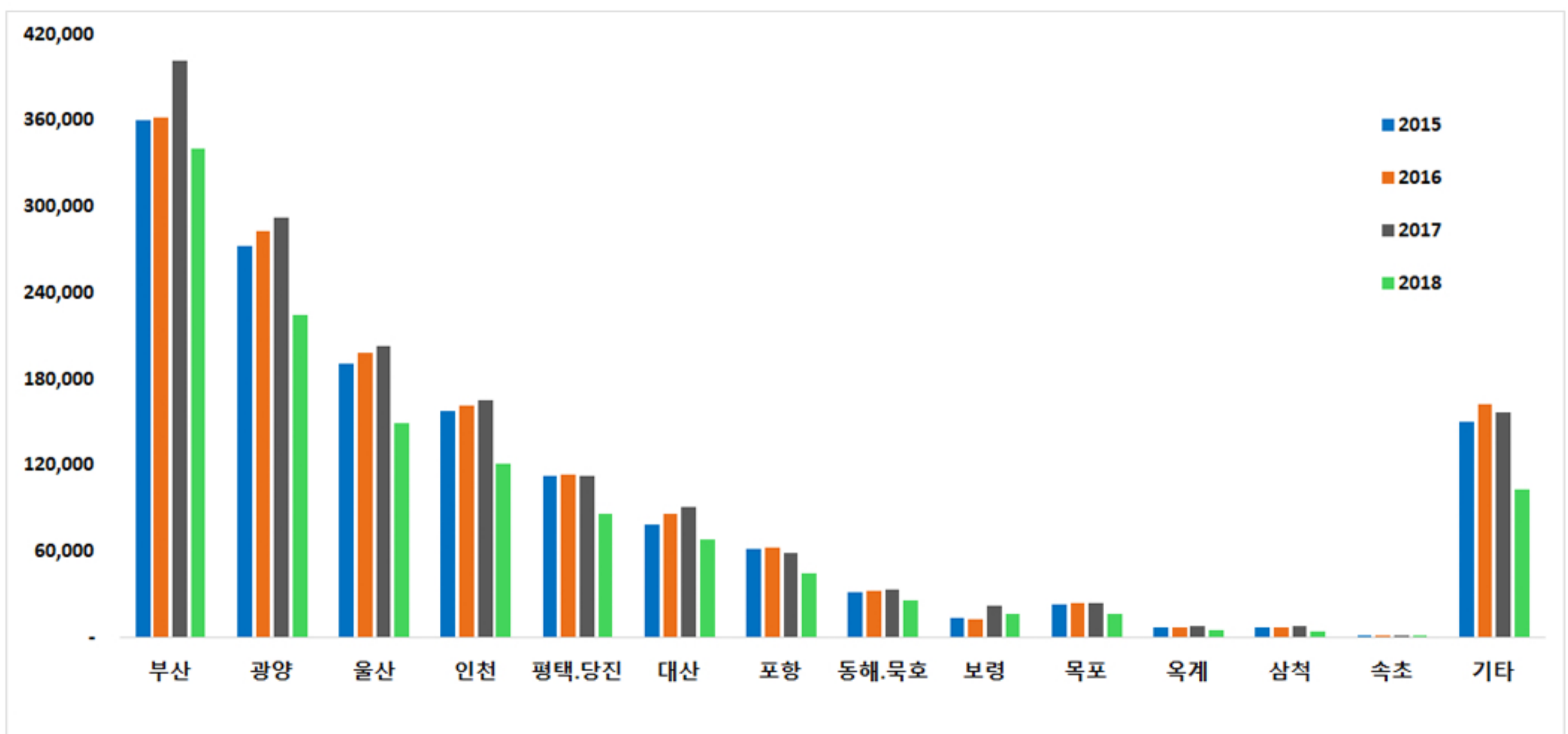
동해·묵호항은 전체 항만 중 8위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물동량 중 약 2.1%을 처리하였다.

전국 항만별 화물수송실적 (2015년~2018년 9월)

(단위 : 천 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산	359,676	362,369	401,233	340,139
광양	272,007	283,106	292,279	224,185
울산	190,870	197,611	202,346	149,155
인천	157,624	161,304	165,521	121,224
평택.당진	112,214	112,948	112,491	85,694
대산	78,514	85,890	90,290	68,404
포항	61,501	62,303	58,890	44,723
동해.묵호	31,279	32,297	33,323	25,583
보령	13,244	12,205	22,260	16,457
목포	22,467	23,548	23,800	16,143
옥계	7,217	6,565	7,485	4,902
삼척	6,403	7,070	7,697	3,994
속초	11	17	74	47
기타	150,026	162,245	156,652	102,981
합계	1,463,054	1,509,479	1,574,341	1,203,629

전국 항만별 화물수송실적 (2015년~2018년 9월)



동해·묵호항 품목별 화물처리실적

18년 1~8월 화물처리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2,271만톤,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296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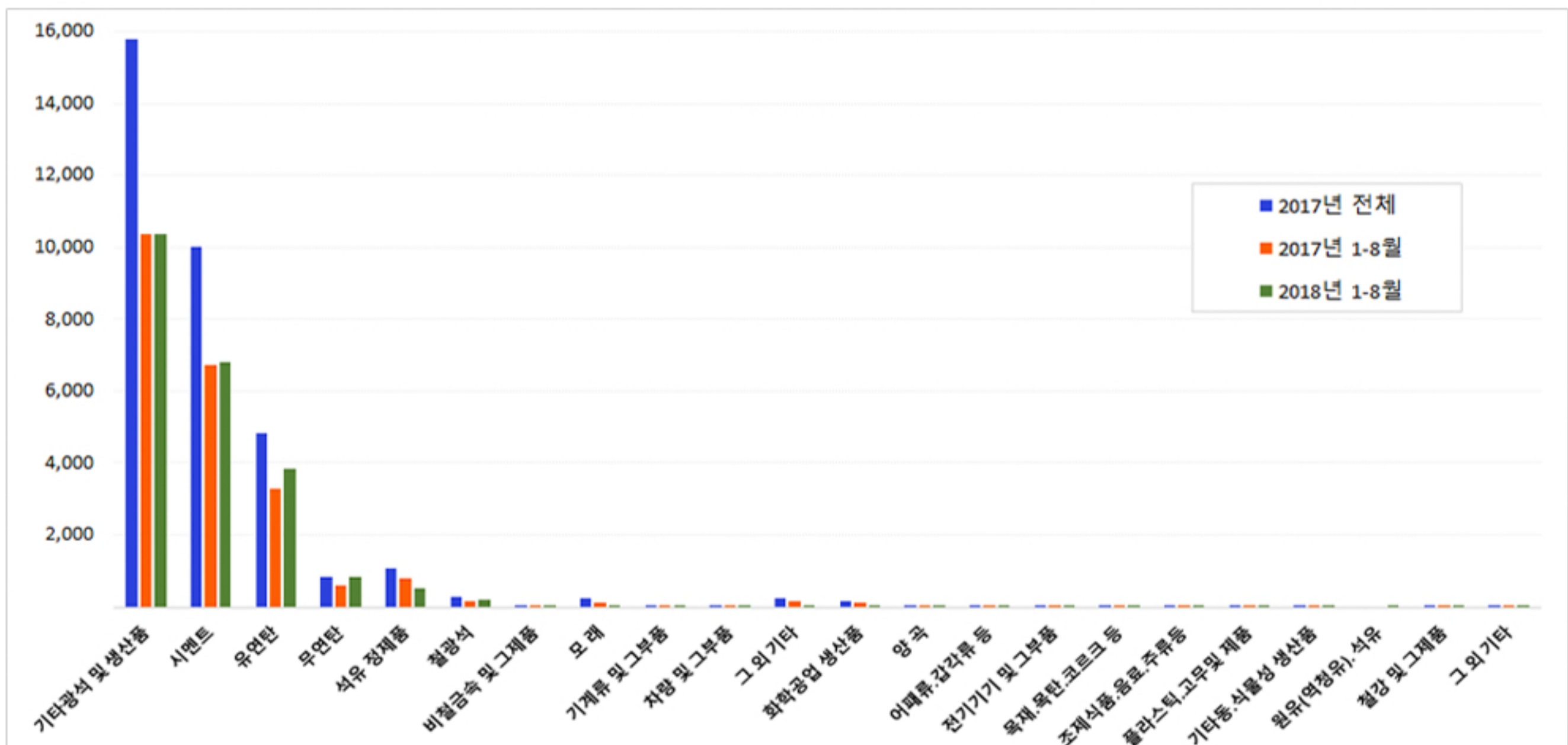
18년 1~8월 주요 처리 화물은 기타광석 및 생산품 1,037만톤, 시멘트 681만 톤, 유연탄 382만 톤 처리했다.

동해·묵호항 품목별 화물처리실적 (2015년~2018년 8월)

(단위 : 천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체	1-8월	8월	1-8월		
합계	31,279	32,297	33,323	22,237	3,001	22,709	2.1%	-1.3%
기타광석 및 생산품	14,143	15,268	15,774	10,351	1,317	10,369	0.2%	-7.0%
시멘트	10,957	10,581	10,006	6,720	715	6,814	1.4%	38.0%
유연탄	3,317	3,596	4,834	3,274	711	3,822	16.7%	-36.8%
무연탄	1,402	1,650	814	602	61	814	35.2%	228.6%
석유정제품	413	539	1,058	785	100	510	-35.0%	-55.3%
철광석	445	404	286	156	34	217	39.2%	-26.8%
비철금속 및 그 제품	371	55	34	23	8	37	62.7%	-38.1%
모래	9	11	235	139	35	34	-75.1%	-56.3%
기계류 및 그 부품	13	14	36	23	4	19	-14.6%	-58.2%
차량 및 그 부품	9	7	4	2	0	16	742.6%	772.4%
화학공업생산품	59	91	169	108	13	13	-88.4%	-97.5%
양곡	22	15	21	21	-	11	-47.4%	-
어패류,갑각류 등	11	14	13	8	1	8	2.2%	-51.0%
전기기기 및 그 부품	7	8	2	1	1	6	389.5%	-8.3%
목재,목탄,코르크 등	40	13	14	9	0	6	-35.6%	903.1%
조제식품,음료,주류 등	17	10	8	6	0	6	-4.0%	-26.0%
플라스틱,고무 및 제품	4	4	4	3	-	2	-23.1%	-
기타동,식물성 생산품	7	2	3	2	0	2	-10.2%	38.6%
원유(역청유),석유	-	-	-	-	-	1	-	-
철강 및 그 제품	24	9	2	2	-	1	-31.8%	-
그 외 기타	8	4	4	2	0	1	-48.5%	-64.2%

동해·묵호항 품목별 화물처리실적 (2017년~2018년 8월)



● 항만·물류 정책 동향

동해·묵호항 인센티브제도 개선

■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통한 동해·묵호항 활성화 박차

동해시는 동해·묵호항을 이용하는 선주 및 화주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인센티브를 개선하여 동해·묵호항을 활성화 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이는 지난 10월 1일 동해시에서 개최된 동해·묵호항 포트세일의 주요 내용 중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물류연구기획팀장 정동훈 박사는 지난해 대비 달라진 인센티브의 내용 및 대상 등을 발표하였다.

■ 기존화물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 지원과 선사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지원,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 신설

기존 화물유치장려금은 순증화물에만 적용했다면 이번 변경된 인센티브 제도에서는 기존화물に対해서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선사를 대상으로 연간 2.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을 신설하여 4년간 5억원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신설하였다.

동해·묵호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신규대조표

제도	기존	변경
화물유치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식: 단가지원 한도: 예산범위 내 대상: 순증화물 세부사항 화주/포워드: 7만 원/TEU 선사/하역사: 3만 원/T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식: 단가지원 한도: 예산범위 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증화물 → 100% 기존화물 → 50% 세부사항 화주/포워드: 7만 원/TEU 선사/하역사: 3만 원/TEU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식: 정액지원 대상: 도/시 협약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식: 정액지원 한도: 2.5억 원/선사 대상: 도/시 협약기업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식: 정액지원 한도: 5억 원(4년간) 대상: 도/시 협약기업
선사 손실 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식: 비율지원 한도: 5억 원 대상: 협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유지
하역사 손실 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식: 비율지원 한도: 10억 원 대상: 협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유지

강원도 해운물류정책 추진 사항

강원도 국제해운물류 5개년 계획 수립

강원도는 '강원도 국제해운물류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권 해운물류 중심 강원도를 비전으로 환동해 물류거점 항만 육성을 목표로 계획 중이다.

또한 주요 과제로는 해운물류인프라 구축 및 내륙과 항만의 조화, 동북아 중심항만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해운물류 인프라 구축 추진과제는 항만물류 인프라 개선 및 동북아 신 해운항로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륙과 항만의 조화 추진과제는 원주권역 물류단지 구축, 물동량 창출, 콜드체인 연계 농수산식품가공산업 육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아 중심 항만 육성 추진 과제는 환동해권 자원·물류 중심 동해항, 환동해권 관광 중심 속초항, 연안여객 및 동북아 웨리 중심 묵호항, 자원 수출 전진기지 삼척항, 친환경 에너지 호산항, 국내산업(비철금속) 지원 전용항만 옥계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 국제해운물류 5개년 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주변국 국제 동향

러시아 동향

한·러 항로 수출물동량 성장세 주춤 4)

최근 호조를 띠던 한·러 항로가 8월엔 상승세를 타지 못했다. 취항선사들에 따르면 8월 한·러 항로의 물동량은 약 1만3,600TEU로 전년 동월 수준이며 주간 평균 물동량은 3,400TEU였다. 7월 주간 평균 물동량이 3,700TEU, 월간 물동량이 1만4,800TEU였던 점과 비교하면 약 10% 줄어들었다.

블라디보스토크-나진 간 정기화물선 운항 재개 예정 5)

연해주 해운회사인 '인베스트스트로이트레스트'는 9.18(화)부터 블라디보스토크-나진 간 정기화물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구간에는 컨테이너, 화물, 냉장 컨테이너의 선적이 가능한 600톤급 소형 선박 '평화'호가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 구간에는 '만경봉'호가 운항을 했었다. 처음엔 러시아인과 중국인 관광객 등 여객들을 실었지만 선박 운영사와 항만사 간의 분쟁으로 여객운항이 중단되고 유엔 제재 품목의 반출 의혹으로 입항이 거절되는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통관 통합서비스 센터 개설 6)

카스카드(Каскад)사는 극동개발공사와 합의해 연해주 나훛트카 지역에 물류 및 화물 포워딩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품 통관 통합서비스 센터를 개설했다. 3,400㎡의 화물 및 컨테이너를 위한 야적장 등 현대화된 인프라 구축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자들이 해상, 철도 및 육로를 통한 물품 반입 및 수출에 필요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 '신북방정책' 본격화에 따른 러시아 슬라비안카항 항만 개발 착수 7)

정부가 연해주 남부지역에 위치한 슬라비안카항 항만개발에 속도를 낸다. 신북방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남북경협철도·도로·항만 사업과 맞물릴 경우 이번 사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가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신북방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러시아 슬라비안카항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극동러시아 주요항만 위치도

4)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bbsID=news&bbsCategory=KSG&categoryCode=all&backUrl=main_news&pNum=119255

5) <http://vestiprim.ru/news/ptrnews/68119-regulyarnye-morskie-gruzovye-perevozki-mezhdu-vladivostokom-i-severokoreyskim-radzhinom-vozobnovyatsya-18-sentyabrya.html>

6) <https://minvr.ru/press-center/news/18992/>

7)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1574>

일본 동향

■ 고베항, 상반기 물동량 148TEU 올해 사상 최고치 예상 8)

고베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고베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2% 증가한 148만 1,000TEU를 기록했다.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수준을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출입화물은 111만 2,000TEU로 0.2% 감소한 반면, 연안화물은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 정책 효과로 10% 증가한 36만 9,000TEU를 기록했다.

■ 마이즈루항 지난해 컨테이너 처리량 사상최대 9)

교토부에 따르면 마이즈루항은 지난해 30% 늘어난 1만 9,272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다. 한일 컨테이너 항로에서 종이·펄프 등 수출, 선박 부품 등의 수입이 호조세로 전체를 끌어올렸다. 적재 컨테이너 수출은 15% 증가한 5,561 TEU, 수입은 19% 증가한 7,841 TEU로 2년 연속 수출입 합계가 1만TEU를 넘어섰다. 항로별로는 한국이 21% 증가한 9,477 TEU로 가장 높은 호조세를 보였으며, 중국이 6% 증가한 3,436 TEU였다.

■ 부산항만공사, 교토지역 화주대상으로 부산항 설명회 개최 10)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과 마이즈루항과의 항로 활성화를 위해 교토부와 상호협력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교토지역 제조기업, 물류기업, 포워더 및 물류관련 정부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부산-일본 간 환적화물이 8.5% 증가하는 등 일본 환적화물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적화물 중 약 70%는 일본의 60여개 지방항만에서 발생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설명회를 통해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대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지방 화주를 대상으로 개별 마케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설명회 개최

8)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bbsID=news&bbsCategory=KSG&categoryCode=all&backUrl=main_news&pNum=118829

9)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bbsID=news&bbsCategory=KSG&categoryCode=all&backUrl=main_news&pNum=116874

10)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529000216>

강원권 산업동향

쌍용양회(주)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연간 1,15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멘트공장이다. 광산 부지를 포함하여 총 340만평의 면적에 입지한 동해공장은 규모뿐만 아니라 품질에 관해서도 이미 국내외 여러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동해공장은 세심한 설비관리를 통한 고품격 시멘트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설비관리시스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일본설비관리협회(JIPM)의 설비관리시스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쌍용양회의 해상출하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북평공장에 시멘트 제품을 공급하는 '모'(母) 공장 격인 동해공장에서 생산된 클링커(시멘트 반제품)와 시멘트는 '바다를 달리는 용'이라는 의미의 '해룡(海龍)'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북평공장으로 도착한다.

8.4km에 달하는 해룡벨트를 타고 이송되는 시멘트 제품은 연간 800만t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2는 시멘트 전용 선박에 실려 전국연안에 위치한 출하공장으로 이송된다. 그리고 3분의 1은 바다를 넘어 미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해외 각지로 수출된다. 지난 2017년 북평공장을 통해 해외로 수출된 시멘트는 약 220만t으로 국내 시멘트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1)

이 외에도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공장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동해시 삼화동에 무릉복지회관을 건립·기증하였고, 쌍용동해장학재단을 설립하여 94년부터 현재까지 2,8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에도 정성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대

- 2000. 07. 쌍용머티리얼 설립 (신소재 사업부문 분사)
- 2000. 10. Taiheiyo Cement Corporation (일본)로부터 외자 유치
- 2001. 11. 설비관리 시스템(TPM)우수상 수상(일본JIPM)
- 2008. 09. 쌍용기초소재 지분참여
- 2009. 03. 한국기초소재 지분참여
- 2009. 04. 쌍용레미콘 출범
- 2009. 09. 3년 연속 포틀랜드시멘트 한국 사용품질지수 1위
- 2009. 12. 쌍용인터내셔널 설립

2010년대

- 2010. 04. 쌍용기초소재 계열회사 편입
- 2011. 03. 쌍용에코텍 설립
- 2011. 08. 한국기초소재 계열회사 편입
- 2013. 12. 쌍용인터내셔널, 쌍용에코텍 합병
- 2016. 04. 한앤코10호 유한회사로 최대 주주 변경



쌍용양회 동해공장



쌍용양회 북평공장

11) <http://news1.kr/articles/?3335860>

(주)DB메탈

DB메탈은 1964년 강원도 동해시에 '삼척산업'이란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1976년 DB그룹에 편입되었다가 2008년 DB메탈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했다.

DB메탈은 50여 년간의 노하우와 최고의 기술력으로 합금철 분야 국내 1위, 정련 합금철 분야 세계 2위 회사로서, 동해공장은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의 생산 규모(연간 50만톤)를 갖추고 있다.

극저인탄소 휘로망간 (ULPC FeMn) 기술을 개발한 세계 양대 회사 (동부메탈, 일본 Nippon Denko)이자 고품질 정련 합금철(Refined FeMn) 기술을 개발한 세계 3대 회사 (동부메탈, 프랑스 Eramet, 일본 Mizushima)로 합금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부메탈은 아르셀로미탈, 차이나스틸, JFE,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외 우수 철강업체들에 고품질의 휘로망간과 실리콘망간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미국, 일본, 독일, 상해 해외지사를 거점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해 왔다.

2015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일류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1년부터 기술 혁신 역량을 지닌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해공장의 부지 면적이 20만평에 달해 확장이 용이한 데다, 바다에 인접해 있어 원료 입고에서 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DB메탈 동해공장



DB메탈 동해공장 위치도

● 센터 및 항만·물류 주요 행사

■ 센터 관련 행사

제목 : 제2회 동해·묵호항 포트세일
일시 : 2018년 10월 1일(월) 14:00
장소 : 동해시 현진관광호텔 4층
내용 : 동해항 활성화 방안, 동해묵호항 3단계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인센티브 제도 등
주관·주최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동해시,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제목 : 관광 및 경제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11:00
장소 : 동해시청 2층 회의실
내용 : 동해 관광산업 및 경제분야 협력
협약기관 : 동해시청, 한국관광협의회중앙회, 강원도 관광협회, 강원도 상공회의소협의회



동해러시아대게마을
Donghae City Russian Snow Crab Village

새로운 사업자와 러시아 대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로 '동해러시아대게마을'이
<2018년 11월 5일> 다시 찾아옵니다.



■ 항만·물류 관련 행사

제목 :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GTI
일시 : 2018년 10월 10일(수) 09:00~17:00
장소 : 서울 포시즌스호텔 6층 누리볼룸
내용 : GTI회원국의 국가발전정책을 연계한 초국경 다자협력, 등 분야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및 정책 대안 제시
주관·주최 : GTI사무국,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목 : 신남방정책과 해양수산 과제 국제세미나
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 09:00~17:00
장소 :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내용 : 신남방정책의 방향과 해양수산분야 협력현황 검토 및 과제 발굴, 추진방안 논의 등
주관·주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목 :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
일시 : 2018년 11월 1~2일(목~금)
장소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퍼런스홀
내용 : '혁신을 통한 항만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세계 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비전 제시
주관·주최 : 부산항만공사

제목 :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일시 : 2018년 11월 7~9일(수~금)
장소 : 포항시 일원
내용 : '함께하는 한-러, 함께여는 미래'를 주제로 한-러 양국 26개 지방정부 대표와 기업인, 전문가가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 간 물류, 철도, 관광 등 교류확대 방안 논의
주관·주최 : 경상북도, 포항시